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네 장막 터를 넓히라

(사 54:1-8)

Enlarge the Space of Your Tent

(Is. 54:1-8)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며 마치 자식이 없는 여인과 같이 처량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너 무도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사 54:1).

홀로 된 여인에게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 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버리셨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큰 긍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사 54:7-8). 유다 백성에게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사 54:2).

우리의 장막의 터를 넓히시기 위함입니다. 장막터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읽으며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자리’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제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장막터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수 1:2-3),

하나님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까지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은 밟는 곳까지 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에게 “네 기름병을 들어 빈 그릇에 채워라 빌릴 수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다 가져와서 채우라”고 하였고 과부가 두 아들을 불러 동네에 있는 빈 그릇들을 빌려오게 했는데 빌려오는 대로 그릇들에 기름을 참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빈 그릇이 더 이상 없다고 하자 기름이 그쳤습니다(왕하 4:1-6). 여러분들도 가능한한 빈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가져오셔서 그 그릇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축복도 엄청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막터를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휘장을 길게 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people of Jude survived for seventy years as captives in Babylonia and a miserable and exhausting life just like a woman who never bore a child. Nevertheless, beautiful and joyful news were heard by them.

“Sing, barren woman, you who never bore a child; burst into song, shout for a joy, you who were never in labor; because more are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woman than of her who has a husband,” say the Lord” (Is 54:1-8).

A lonely woman has a husband. He is the almighty God, the Father, the creator and a holy God of Israel. It is he who became a husband of Israel. Owing to the crime of Israel, God for a brief moment abandoned them but he did not completely, and brought them back with deep compassion (Is 54:7-8). How did they receive such tremendous grace and blessings from God?

It is because of the atonement grace of Jesus Christ. By his punishment, we enjoy peace, and by his wound, we are heale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If so, why did God give us such tremendous salvation and grace?

“Enlarge the space of your tent, stretch your tent curtains wide, do not hold back; lengthen your cords, strengthen your stakes (Is 54:2).

That is to enlarge the space of tent for us. The word, the space of tent is read as ‘misikan’ in Hebrew, and it refers to ‘the place of life for God’, which means to enlarge the place of life for God. If we believe this truth, from now on, by looking at our weakness, we must not restrict the space of our 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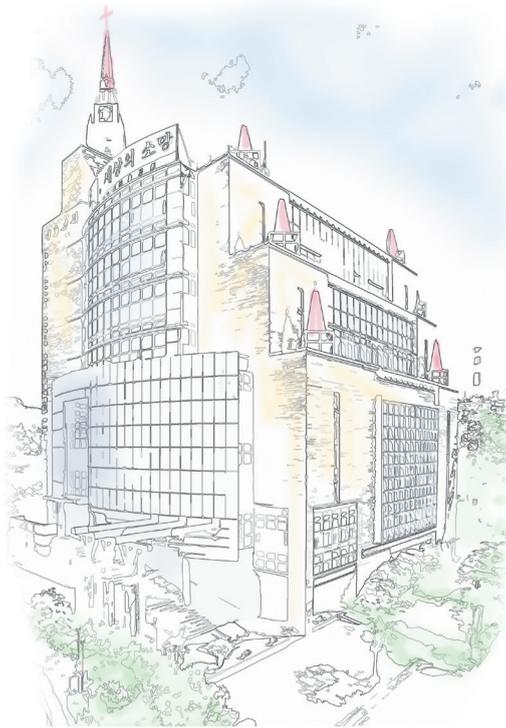
“Now then, you and all these people,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in to the land I am about to give to them-to the Israelites.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Josh 1:2-3).

God says he will give us every place where we set our foot. God’s blessings come to only the place where we set our foot.

Elisha said to the poor widow, “Pour your oil into the empty jars which you go around and ask all neighbors for, as each is filled”, so that all the jars were filled as much as possible her two sons brought empty jars from the neighbors. And there, when her sons said that there was not a jar left, then the oil stopped flowing (2King 4:1-9). I hope that you will bring many jars to God as much as possible, and fill the jars with God’s blessings.

My beloved Christians,

God tells us that we need to enlarge the space of our church’s tent. Even though God’s blessings are enormous, do not stay there, do not give up by looking ourselves, enlarge the space of the tent by looking at the father Almighty God. Enlarge the boundary, and stretch your curtains wide. By being greatly indebted to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the people of God having a victory tod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21일(월) ~ 26일(토), 오전 5시
성금요일(3.25)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본당 - 연합다락방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21일(월)부터 3월 26일(토)까지 오전 5시부터 본당에서 열린다. 설교는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성금요일(3월 25일)에는 박노철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래 표와 같이 부목사들이 담당한다.

성금요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부활주일에는 드리는 금식헌금은 교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성금요일 다락방에 배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저녁 8시부터 본당에 모여 박노철 담임목사의 인도로 드린다. 모든 성도들

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으며 깊이 묵상하고 근신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한다.(별표 참조)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오전 5시에 부활절 새벽예배(찬양 : 시온찬양대)를 드리고,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순결서약식이 있으며, 임마누엘찬양대(대장 : 조정식 장로, 지휘 : 류충기 집사)가 준비한 부활절 감사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성경 / 사건	성전을 두 번째 청결케하심 (막11:15-26)	유대인들과 마지막 논쟁 (막11:27-12:40)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 (마24:3-25:46) 예수의 발에 두 번째 기름부음 (눅7:36-50)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 (막14:10-11)	베다니에서 휴식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먹다 (막14:12-31) 예수,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심 (막14:32-52)	직전대제사장 안나스와 사바에서 야간 재판 (요18:12-13)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야간 재판 (막14:53-72)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눅22:66-71) 빌라도 앞에 나타남(눅23:1-5) 예수, 헤롯 앞에 서다(눅23:6-12) 빌라도 앞에 두 번째 서다(눅23:13-25) 십자가에 달리심(막15:16-41) 무덤에 매장(막15:42-47)	무덤에서 지내다
설교자	박영준 목사	조원영 목사	서명철 목사	황 광 목사	박노철 목사	서준권 목사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3월 20일(주) 찬양예배 시

교구위원회(위원장 : 박두호 장로)는 3월 20일 교구일꾼 모두 필히 참석 바란다. (주) 찬양예배 시 헌신예배로 드린다.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3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 101호

교육위원회(위원장 : 이강진 장로)는 교육 1,2,3,4 국 전 교사 대상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오는 3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이날 강사는 장신대 목회상담학 이상억 교수로 주제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이다. 교회학교 교사는 전원 참석바라며 식사는 801호에서 오후 6시부터 한다.



이상억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 (B.A.)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 복음주의 루터교 신학대학원 (M.A.)
-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Th.M., Ph.D.)

찬양대원세미나

4월 12일(화) 오후 7시30분

찬양대원 세미나가 '찬양대의 본질과 사명(사 43:21)'이라는 주제로 4월 12일(화), 오후 7시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는 하재송 목사(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가 선다. 모든 찬양대원 및 그레이스 핸드벨, 아멘관현악단 대원 모두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강사 하재송 목사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하재송 교수 (총신대학교)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교회음악석사, 음악박사)
- 현) 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
- 현) 서현교회 협동목사
- 현) HIM Chamber Choir 상임지휘자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크리스찬과 생활 - 크리스찬의 가정윤리 -

(요 20 : 21)

1. 가정의 중요성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며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관이다. 인류학자들은 가정을 사회집단의 기본단위로 보고 사회학적으로 부계 사회나 모계 사회나 하며 토론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토론하지 않는다. 다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고 말씀한다.

남녀평등이란 말이 오늘날 가정을 매우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남녀는 분명 평등하고 동등하다 그러나 같지는 않다. 남자와 여자가 같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칼 막스는 가정은 하나님의 집단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

해서는 파괴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제도를 인간이 파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장소,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장소라고 말씀하신다.

가정은 영적 사역의 기초가 된다. 딤펀 3:2에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말씀하며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은 가정이 든든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 또한 섬기는 교회가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가정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온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므로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

또한 가정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천국의 상징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그러므로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이 생명의 약속이 가정을 통해서 온다.

2. 성경적 가정윤리

성경에서는 기독교적 가정 윤리로 우선 예수 그

리스도를 모시는 가정이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사회 중심적인 가정 이해는 가정을 사회의 진화된 제도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생긴,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질 때 그 가정은 건전해지고 깨끗해지고 활발해지고 침체되지 않는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불화한 일이 생기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된다.

창세기 1:27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신학적 표현으로 문화명령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도 주셨지만 권위도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가 된다.

또 다른 기독교적 가정 윤리는 삶의 원리가 성경적이어야 한다. 인간이 논하고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모든 삶의 원리를 성경의 원리에서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다음주 계속)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여!

예수!
그 이름 복되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 118:25)

노약자 심방

천국 소망



지난 1월 26일(화) 송갑순 권사님(93세)을 시작으로 하여 3월 11일(금) 7교구 송순옥 권사님(88세)을 마지막으로 박노철 담임목사는 70세 이상 되신 분으로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열다섯 분의 노약자 심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년이 지나는 동안 대부분 더 쇠약해지셨으나, 더욱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심방대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 교구목사님, 교구장 장로님을 비롯한 교구와 다락방 일꾼들, 살롬권사회장님과 제2권사회장님을 반갑게 영접하셨습니다.

권사님들 중에는 담임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에 서울교회를 위해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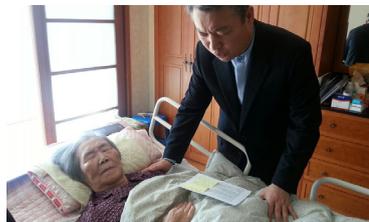
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작고 느린 목소리이지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요양원에 계신 중이시에도 불구하고 심방대원들을 위하여 빵과 과일과 음료수를 꾸미듯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하신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교회는 수년째 출석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분도 계셨고, 순례자와 주보를 통하여 궁금한 교회 소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수년째 남편의 병간호를 돕고 계시는 권사님의 귀한 모습, 병상에 계신 남편을 잘 섬기셔서 병상세례를 받게 하신 권사님 등,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연약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비전트립

구원의 증인들!



정지은 집사 (비전트립 단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방글라데시 비전트립단장으로 섬기게 된 정지은 집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 방글라데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3번의 비전트립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다시 이슬람교나 힌두교

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서울교회 비전트립팀은 다시 방글라데시로 가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하종 부족사역, 다카 미션스쿨 사역과 다카 교회사역, 아사 학사 사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사역, 이미용사역, 문화사역, 주일학교 사역, 환경미화사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한국교회도 많은 위험과 위기 가운데 있습

니다. 이럴때 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생명이요 구원임을 증거하고자 소원합니다.

저희의 선교는 단순한 행사위주와 문화행사가 아닌 영성적 선교에 중점을 두고,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쓰임받는 2016 방글라데시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